

2020년 교회 표어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사람인 증거 (I) - 사랑으로 일하십시오!

| 사도신경

| 찬 송 620장

| 기 도

| 성경본문 요한복음 15장 8절 ~ 12절

8.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 삶 나누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성령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변화된 나의 삶의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말씀나누기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요 목회자인 필립 케네슨이라는 분은 “그리스도인인 내가, 교회가 맺고 있는 열매가 과연 성령의 열매인가?”를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 기도를 했을 때, 성령이 불같이 혀같이 각 사람 심령에 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모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진정 예수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이유는 교회가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로 정말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를 결정하는 관건은 “내가 맺고 있는 열매” 그리고, “교회가 맺고 있는 사역의 열매가 과연 성령의 열매”인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른 결과인가를 진단하는데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져 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져 가고 있습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바르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기도의 방향, 내가 기도를 통해 가진 염원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내 인간적 열망을 뚫어 내는 것이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의 소욕인지는 “내가 이 열매를 맺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열매맺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긍휼로 세상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늘 넉넉함과 자유함이 있고 파스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성공을 이루고 있는 분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못맺느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이루어도 이 사람의 품성과 인격에 이 열매가 잘 보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며 교회봉사 열심히 하면서 인생이 평안하고 복을 누리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 성공한 삶의 열매이며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마 7:16)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한 삶의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인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시는 열매인가의 문제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 14:26)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채우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하신 생각, 말씀 그리고 그의 삶 자체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가장 중요한 선물과 성품인 사랑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이 이 사랑이고, 모든 것의 마지막이 이 사랑입니다. 믿음의 사도라는 바울도 사랑을 가장 온전한 은사로 보았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전 13:13). 이 사랑...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의 첫열매이면서, 동시에 나머지 열매의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사랑을 추구하고 살면, 나는 나머지 여덟가지 열매를 서서히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홉가지 열매는 각각 다른 열매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열매의 다른 양상이요, 사랑이 자라났을 때에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요컨대 다른 여덟가지 속성을 다 묶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나옵니다.

사랑으로 일하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 한분만으로도 <희락>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해 기쁨이 충만합니다. 희락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하니까 분쟁하거나 당짓는

것이 싫어집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면 <오래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긍휼히 여깁니다. <자비>를 베풁니다. 동시에 공의롭습니다. 강한 자고 두호하지 않고, 약한 자고 홀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잘못했을 때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하면서도 다른 이의 잘못에 대하여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며 <양선>을 베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려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기에 내 욕을 끊임없이 죽이며 주님께 <충성>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절제>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에 유혹을 이기고 경계, 아버지의 말씀 안에 머무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싶지만 절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고전 13:4-7)

그리스도인의 모든 시작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새문안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서 함께 하는 이들과 세상이 사랑으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제일 목표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두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의 궁극적 목적, 자신의 첫번째 소명을 “사랑의 열매”맺는 것으로 두면 됩니다.

말씀 나눔

1. 예수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9-11)
2. 내가 성령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실하고 있는 사랑의 열매를 이야기해 봅시다.
3.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해 봅시다.